

믿을 수 없는 서술의 수사학과 독서의 역동적 과정

박 진*

요약

‘믿을 수 없는 서술’은 최근 들어 다시 주목받고 있는 개념으로, 기존의 수사학적·윤리적 접근과 독자 중심의 인지론적 접근을 종합하면서 새롭게 재개념화되고 있다. 하지만 국내의 관련 논의들은 수사학적 관점의 소설 미학 연구와 인지론적 관점의 독서 교육 연구로 양분돼 있어, 이 같은 이론적 성과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수사학적 관점의 연구들은 윤리적 차원이 배제된 ‘미적 수사학’의 제한된 영역에 머물러 있으며, 인지론적 관점의 연구들은 ‘믿을 수 없음’의 기준을 실제 독자 개개인의 가치관에 맡김으로써 해석의 타당성에 문제가 발생하는 한계를 드러낸다. 이에 이 글에서는 믿을 수 없는 서술의 수사학이 지닌 다층적 효과와 독자가 경험하는 윤리적 참여로서의 독서 과정을 연계하여 살필 것이다. 이로써 다양한 실제 독자가 어떻게 신빙성 판단의 타당성을 확보하면서도 능동적인 의미 산출에 기여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고자 한다. 본문에서는 정이현의 『순수』와 임현의 『고두』를 통해, 서술의 신빙성을 판단하고 의미화하는 독서의 과정을 구체적으로 분석할 것이다. 『순수』에서는 저자적 행위 주체(내포저자)가 배치한 텍스트의 신호들에 근거해 서술의 비신빙성을 추론하는 ‘저자의 청중’으로서의 독자의 역할과, 이 같은 신빙성 판단을 토대로 저마다의 신념과 가치를 지닌 실제 독자가 의미 생성에 참여하는 과정을 살핀다. 이어서 『고두』에서는 ‘너’라는 수화자의 존재로 전경화된 믿을 수 없는 서술의 수사학이 독자에게 윤리적 입장 설정을 촉구하는 양상과, 이에 대해 실제 독자가 보일 수 있는 각기 다른 반응들을 검토한다. 이를 통해 신빙성 없는 서술자의 관점과 텍스트 전반(또는 내포저자)의 관

* 국민대 교양대학 교수

점 사이의 간극을 매개로, 개별 독자의 가치관이 적극적으로 투영된 의미를 생성하는 독서 과정의 의미를 확인할 것이다. 이는 수사학적·윤리적 접근과 인지론적 접근을 종합하여 믿을 수 없는 서술을 더 심도 있게 논의하기 위한 모색의 성격을 띤다.

주제어: 믿을 수 없는 서술, 독서 과정, 신빙성 판단, 내포저자의 수사학, 인지서사학, 독자의 윤리적 반응, 저자의 청중, 서사의 청중, 소격 비신빙성

목차

1. 서술의 신빙성 논의에 나타난 성과와 한계
2. 신빙성 판단을 위한 추론과 능동적 의미 생성 과정
3. 윤리적 입장 설정에 대한 요청과 독자 반응의 역동성
4. 믿을 수 없는 서술을 의미화하는 독서 과정의 의미

1. 서술의 신빙성 논의에 나타난 성과와 한계

‘믿을 수 없는 서술(unreliable narration)’은 최근 들어 새롭게 주목받고 있는 개념이다. 일찍이 『소설의 수사학』에서 부스가 창안한 믿을 수 없는 서술자¹⁾ 개념은 서술의 신빙성 논의로 이어지면 서, 수사학적·윤리적 접근은 물론이고 페미니스트 서사학으로부터 인지서사학에 이르는 최근 서사이론 전반에서 큰 관심을 불러 모았다. 이는 “기술(description)과 해석의 접촉면이자 미학과 윤리의

1) 믿을 수 없는 서술자에 대해 부스는 “작품의 기준(norms) 곧 내포저자(implied author)의 기준에 부합하게 말하고 행동하는 서술자를 믿을 수 있다고 하고, 그렇지 않을 때에는 믿을 수 없다고 한다.”라고 정의내린 바 있다. W. C. Booth, *The Rhetoric of Fiction*, 2nd. ed., Chicago & London: Chicago University Press, 1983(1961), pp. 158-159.

접촉면”²⁾으로서 믿을 수 없는 서술이 지닌 복잡성과 역동성에 기인한다. 믿을 수 없는 서술은 간접적 의사소통 양식인 아이러니의 특수한 형식이면서,³⁾ 독서 행위를 통해 이 소통을 실현시키는 독자의 능동적 추론 과정이기도 하다. 이 과정은 또한 특정한 방식으로 독자의 가치에 개입하고 영향을 미치고자 하는 설득과 요청의 수사학인 동시에, 인물·서술자·내포저자의 서로 다른 입장들과 역동적으로 상호작용하는 독자의 윤리적 참여라 할 수 있다.⁴⁾

따라서 믿을 수 없는 서술을 온전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비신빙성의 신호들(signals)을 배치해 간접화된 의사소통의 길을 만드는 저자적 행위 주체(authorial agency, 또는 내포저자)의 층위와, 실질적인 의미 생산에 기여하는 독자의 능동적 역할을 함께 고려해야만 한다. 믿을 수 없는 서술을 독자의 해석 전략으로 본 인지서사학적 접근에서는 내포저자를 배제한 채 개별 독자의 선지식과 가치기준을 근거로 서술자의 신빙성 여부를 파악하고자 했지만,⁵⁾ 내포저자에 의해 디자인되어 독자에게 부과된 텍스트의 ‘다중적 구축’에 유의하지 않은 결과,⁶⁾ 의미 산출의 풍부함과 해석의 타당성 면에서

2) A. F. Nünning, “Reconceptualizing Unreliable Narration”, J. Phelan & P. J. Rabinowitz ed., *A Companion to Narrative Theory*, Oxford: Blackwell, 2005, p. 90.

3) W. C. Booth, op. cit., p. 304.; S. Chatman, *Story and Discourse: Narrative Structure in Fiction and Film*, Ithaca & London: Cornell University Press, 1978, pp. 228-235.

4) J. Phelan, “Narrative Theory, 1966-2006: A Narrative”, R. Scholes, J. Phelan, and R. Kellogg, *The Nature of Narrative*, Fortieth Anniversary Edition, Oxford &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2006, p. 297, 300, 323.

5) A. F. Nünning, ““But Why Will You Say That I am Mad?”: On the Theory, History, and Signals of Unreliable Narration in British Fiction”, *Arbeiten aus Anglistik und Amerikanistik* Vol. 22, 1997, p. 87.

6) J. Phelan, *Living to Tell about It: A Rhetoric and Ethics of*

한계를 드러냈다. 이에 인지서사학적 논의를 이끌었던 뉘닝은 결국 “서술자가 의도하지 않고서도 자기 죄를 기소하는(unintentional self-crimination)”⁷⁾ 경우가 암시하듯, 믿을 수 없는 서술에는 “보다 높은 층위의 저자적 행위 주체가 전제”될 필요가 있음을 인정하기도 했다.⁸⁾

한편 수사학적·윤리적 접근은 인지론자들로부터, 내포저자의 규준이라는 불명확한 기준을 내세워 “단 하나의 옳은 해석만 있다”는 식의 주장을 편다는⁹⁾ 비판을 받은 바 있다. 이 논쟁의 과정에서 수사학적 관점의 이론가들은 독자 중심의 논의들을 부분적으로 수용하면서 부스의 기존 모델을 가다듬고 발전시켰다.¹⁰⁾ 특히 펠란은 내포저자와 그의 이상적 독자인 ‘저자의 청중’¹¹⁾ 간의 소통에 더하여, 개개인의 특수한 “신념과 가치들”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 실제 독자의 “윤리적 반응”들에도 주의를 기울인다.¹²⁾ 서술의 신빙성에 관한 최근 논의들은 이렇듯 독자 중심의 인지론적 관점과 기존의 수

Character Narration, Ithaca & London: Cornell University Press, 2005, p. 48.

7) B. Zerweck, “Historicizing Unreliable Narration: Unreliability and Cultural Discourse in Narrative Fiction”, *Style* Vol. 35, 2001, p. 156.

8) A. F. Nünning(2005), p. 100.

9) Ibid., p. 92.; A. F. Nünning, “Reconceptualizing the Theory and Generic Scope of Unreliable Narration”, J. Pier ed., *Reconceptualizing Trends in Narratological Research*, Tours: Tours University Press, 1999, pp. 63-84.

10) 이에 대해서는 필자의 다른 논문에서 상세히 다룬 바 있다. 박진, 『믿을 수 없는 서술의 이론적 쟁점과 신빙성 판단 과정의 윤리적 효과』, 『현대문학이론연구』 제75집, 현대문학이론학회, 2018, 138-148면.

11) 저자의 청중(authorial audience)은 문자적 서술 이면에서 저자적 행위 주체와 소통하는 독자로, 실제 독자는 이 같은 “능동적 참여를 향한 초대를 이해하고 거기에 응하기 위해 저자의 청중 안으로 들어”갈 수 있다. J. Phelan(2006), p. 301.

12) J. Phelan(2005), pp. 59-60.

사학적 관점을 종합하면서, 믿을 수 없는 서술을 더 심도 있게 이론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하지만 국내의 관련 논의들은 이 같은 성과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믿을 수 없는 서술에 관한 선행 연구들은 수사학적 관점의 소설 미학 연구와 인지론적 관점의 독서 교육 연구로 양분돼 있는 상황이다. 전자는 소설 창작 기법의 차원에서 믿을 수 없는 서술이 보여주는 미학적 성취에 주목하는 논의들로서,¹³⁾ 일정한 의의에도 불구하고 윤리적 차원이 배제된 “미적 수사학”¹⁴⁾의 제한된 영역에 머물러 있다. 그런가 하면 후자의 논의들은 ‘믿을 수 없음’의 기준을 개별 독자의 가치관과 ‘합리적’ 판단(선지식에 기초한)에 맡김으로써 서술의 신빙성 유무에 혼란을 초래하는, 독자 중심 이론의 전형적 한계를 그대로 보여준다. 채만식의 『치수』를 인물 서술자 ‘나’가 “그 시대에 살아남기 위해서 자기 삶을 개척하는 이야기”로 읽는 독법이 “문제적 화자의 ‘신뢰할 수 있음’ 읽기”에 속한다고 설명하는 최인자의 논문,¹⁵⁾ 최서해의 『탈출기』에서 “작가 자신이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든” “막연히 꿈만 꾸면서 간도로 간” ‘나’의 서술은 “독자가 합리적, 논리적, 현실적 기준에서 보았을 때”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이를 믿을 수 없는 서술로 간주하는 김경애의 논문¹⁶⁾ 등이 단적인 예라 하겠다.¹⁷⁾

13) 믿을 수 없는 서술을 근대소설의 형성 과정에 나타난 미학적 장치의 확립 문제로 본 최병우의 논문과, ‘신빙성 경계’를 불확실하게 만드는 서사 전략의 심미적 효과에 주목한 박형서의 논문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최병우, 『서술자의 신빙성에 관한 연구—한국 근대소설의 형성과 관련하여』, 『현대소설연구』 제19집, 한국현대소설학회, 2003.; 박형서, 『서술의 신빙성 연구』, 『우리어문연구』 제25집, 우리어문학회, 2015.

14) S. Chatman, *Coming to Terms: The Rhetoric of Narrative in Fiction and Film*, Ithaca & London: Cornell University Press, 1990, pp. 188-189.

15) 최인자, 『소설 화자의 맥락적 이해와 윤리적 반응 형성을 위한 소설 교육』, 『독서연구』 제25집, 한국독서학회, 2011, 119, 124면.

이런 혼란은 믿을 수 없는 서술의 수사학적 복잡성과 독서 과정의 역동성에 대한 더 섬세한 이해의 필요성을 시사한다. 펠란에 따르면 믿을 수 없는 서술에서 저자는 하나의 텍스트를 두 가지 청중(서술자의 청중과 저자의 청중)과 두 가지 목적(서술자의 목적과 저자의 목적)에 적합하게 만들어낸다. 서술자와 그의 청중(수화자, narratee) 사이의 의사소통이 '서술자의 기능'을 한다면, 내포저자와 저자의 청중 간의 소통은 서술자가 직접 언급하지 않은 것을 '폭로하는 기능'을 한다.¹⁸⁾ 따라서 독서 과정을 통해 독자는 서술자와 소통하며 그의 서술 행위에 귀 기울이는 한편, '저자의 청중'의 자리에서 내포저자가 배치한 텍스트의 신호들을 따라 서술자의 비신빙성을 간파해내고 표면적 서술 뒤에 은폐된 것들을 추론해야 한다.

이때 "믿을 수 없음에는 매우 다양한 종류가 있으며, 한 서술자가 어떤 면에서는 신빙성이 있고 다른 면에서는 신빙성이 없을 수 있음을 아는 것"¹⁹⁾은 중요하다. 믿을 수 없는 서술이라도 서술자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허구 세계에 대한 최소한의 '올바른' 정보를 전달하기 마련인데, 실제 독자는 서술자가 제공하는 서사적 정보들을 선별적으로 수용하면서 '서사의 청중'²⁰⁾의 자리에서 허구 서사에

16) 김경애, 『'믿을 수 없는 서술' 개념을 활용한 읽기 교육 방법 모색』, 『교양교육연구』 제8권 5호, 한국교양교육학회, 2014, 309-310면.

17) 이런 관점들에 대해 정진석은 "독자의 가치관과 서술자의 서술 사이의 충돌은 서술자의 신빙성 없음"에 대한 "필요충분의 요건은 아"니며, "만약 서술자의 가치관이 해당 텍스트의 가치 체계를 대변"한다면 "그는 신빙성 있는 서술자"임을 분명히 한다. 하지만 개별 독자가 내린 신빙성 판단의 타당성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으로 "해석 공동체의 의미 교섭"을 제안하는 그의 논의는 타당성의 근거를 독자의 개인적 판단에서 '다수 의견'으로 대체하면서 인지론적 관점으로 되돌아가고 있다. 정진석, 『소설 이해로서 서술자의 신빙성 평가에 관한 연구』, 『국어교육학연구』 제42집, 국어교육학회, 2011, 635, 638면.

18) J. Phelan(2006), p. 323.

19) Ibid., p. 322.

20) 서사의 청중(narrative audience)이란 스토리 세계 '내부'에 있는 독자의 위치로서, 서사의 청중 안으로 들어가는 우리의 능력 때문에 실제 독자는 허구 서사

몰입하고 반응할 수도 있다. 서술자의 기능은 또한 보고하고 해석하고 평가하는 행위를 넘나드는데,²¹⁾ 한 서술자는 이 각각의 층위에서 서로 다른 정도의 신빙성을 지닐 수 있다. 실제 독자는 이 모두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면서 믿을 수 없음의 양상과 정도를 파악한 뒤, 이를 바탕으로 텍스트의 의미를 생성하게 된다. 그리고 이 과정에는 개별 독자의 신념과 가치관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것이다.

이 같은 관점으로 이 글에서는 정이현의 『순수』와 임현의 『고두』를 분석함으로써, 서술의 비신빙성을 판단하고 의미화하는 독서의 역동적 과정을 구체적으로 살펴볼 것이다. 이 두 소설은 서술자의 보고·해석·평가와 저자의 청중이 한 추론 사이에 불일치가 증가하면서, 독서가 진행될수록 서술자와 저자의 청중 간의 거리가 멀어지는 소격 비신빙성(*estranging unreliability*)²²⁾을 띠는 것이 특징이다. 이런 경향의 서술에서 신빙성 판단 과정은 실제 독자 개개인에게, 신빙성이 의심스러운 서술자와의 거리를 조정해가며 자신의 입장을 설정하고 재정위하는(*re-positioning*) 윤리적 참여로서의 의의를 지닐 수 있다.

나아가 위의 소설들에서 믿을 수 없는 서술자는 도덕성과 윤리 차원의 강한 비신빙성에도 불구하고 단순한 비난이나 풍자의 대상으로 남는 대신에, 실제 독자의 상이하고 복잡한 반응들을 불러일으킨다. 이런 양상은 텍스트에 대한 논쟁이나 논란을 유발하기도 하지만, 논리적 추론의 영역을 넘어서는 의미 생성의 다층적 가능성을

에 몰입하고 정서적으로 반응할 수 있다. Ibid., p. 301.; P. J. Rabinowitz & M. W. Smith, *Authorizing Readers*, New York: Teachers College Press, 1988, pp. 1-28.

21) 서술자의 보고하기(reporting)는 사실의 축을, 해석하기(interpreting)는 지식과 인식의 축을, 평가하기(evaluating)는 윤리와 가치의 축을 따라 이루어진다. J. Phelan(2005), pp. 50-51.

22) J. Phelan, "Estranging Unreliability, Bonding Unreliability, and the Ethics of *Lolita*", *Narrative* Vol. 15-2, 2007, pp. 225.

열어주기도 한다. 정이현의 『순수』와 임현의 『고두』는 각기 다른 관점과 가치를 지닌 실제 독자가 신빙성 판단의 타당성을 확보하면서도 어떻게 능동적인 의미 산출에 기여할 수 있는지를 예시하는 텍스트로도 흥미롭다. 이에 대한 분석은 믿을 수 없는 서술의 수사학이 지닌 다층적 효과와 실제 독자의 역동적 참여 과정을 연계하여 살펴으로써, 서술의 신빙성 문제를 더 깊이 있게 논의하기 위한 모색이 될 것이다.

2. 신빙성 판단을 위한 추론과 능동적 의미 생성 과정

이 장에서는 우선 정이현의 『순수』에서 텍스트에 제시된 비신빙성의 신호들을 따라가며 서술의 신빙성 여부를 판단하는 독자의 추론 과정을 살펴보게 된다. 이어서, 이를 바탕으로 능동적인 의미 생성에 참여하는 독자의 독서 경험과 그 의의에 대해 이야기하기로 한다. 『순수』의 기본적인 서술 상황부터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이 소설의 인물 서술자 ‘나’는 첫 번째와 두 번째 남편이 갑작스럽게 죽은 뒤, 세 번째로 결혼한 남편마저 칼에 찔려 식물인간이 된 상황에 놓여 있다. 소설은 세 번째 남편의 열다섯 살 된 딸이 자기 아버지를 칼로 찌른 사건에 대한 ‘참고인’ 조사에서 ‘나’가 진술한 내용으로 이루어진다. “첫 번째 남편은 사고로 죽었어요.”²³⁾로 시작되는 ‘나’의 서술은 세 명의 남편에게 일어난 ‘사고’ 또는 ‘사건’을 차례로 진술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 이런 서술 상황은 이 사건들에 ‘나’가 얼마나, 어디까지 연루돼 있는지(범죄적으로 또는 도덕적·윤리적 차원에서)를 추론해가는 과정으로 독자를 안내한다. 이 추론을 위해 독자

23) 정이현, 『순수』, 『낭만적 사랑과 사회』, 문학과지성사, 2003, 99면. 이후 이 소설의 인용 부분은 본문 괄호 안에 면수로만 표기한다.

는 허구 세계의 사실에 대한 ‘나’의 보고·해석·평가를 종합하여 서술의 신빙성을 판단해야 한다.

‘나’의 진술에 따르면 토목기사였던 첫 번째 남편은 “빗길 고속도로의 과속 운전으로 인한 사고”(101면) 때문에 사망했고, 캐나다의 중국계 사업가였던 두 번째 남편은 그가 고용한 ‘나’의 운전기사 ‘양(梁)’에게 살해당했다. ‘나’는 첫 남편의 교통사고 사망으로 “적지 않은 보험금”(106면)을 수령했고 두 번째 남편의 죽음으로 ‘상당한 재산’을 상속받았지만, 보험회사 조사관과 캐나다 법정이 내린 판단이 증명하듯, 그 사건들과는 무관하다는 것이 ‘나’의 주장이다. 세 번째 남편에게 일어난 끔찍한 사건에 대해서도 ‘나’는 “사건의 목격자가 아니라 현장을 최초로 발견한 사람에 지나지 않”아 “별로 아는 게 없”(117면)다고 말한다. 그러나 텍스트 곳곳에 배치된 비신빙성의 신호들은 이 같은 표면적 진술을 의심하면서 그 이면에서 또 다른 의미를 함성하게 이끈다. 이 과정을 거치는 동안, 소설 초반부터 다소 의심스럽게 느껴지던 ‘나’의 서술은 후반부로 갈수록 믿을 수 없음이 명백해진다.

첫 남편의 죽음에 관한 ‘나’의 서술부터 살펴보자. 사고의 정황을 진술하는 ‘나’의 태도는 지나치게 냉정하고 냉소적이어서 어딘지 석연치 않다. 진술의 첫머리부터 ‘나’는 죽은 첫 남편이 “제 콤플렉스를 길바닥에 질질 흘리고 다니는” 사람이라 평하고, 자신은 그런 “인간들을 경멸”(99면)한다고 단언한다. 사고 당일에도 ‘나’는 출근 준비를 하는 중에 전화로 남편의 사망 소식을 듣고는 태연히 “샤넬 립스틱 번트 레드”로 “윗입술을 마저 바르고, 검은색 투피스를 꺼내 입”(100면)었으며, “립스틱이 좀 진하지 않으냐”는 여고 동창의 귀엣말에 영안실 “여자 화장실의 더러운 거울 앞에서” “뺨을 닦듯 입가를 쓰옥 문질러 닦”(101면)었다고 말한다. 장례식 이후의 행적과 이를 서술하는 ‘나’의 태도도 미심쩍다. ‘나’는 “보험금이 계좌로 입금되

던 날 오후”에 곧바로 “사표를 써서 부장의 책상머리에 밀어놓고 회사를 빠져나”오다가 하면, “여행사 직원에게 웃돈을 얹어주고” 당장 떠날 수 있는 “발리행 비행기 티켓을 구”(102면)한다. “퍼스트 클래스로 끊”은 비행기 티켓은 “나에게 주는 작은 선물”(102면)이었다고 표현한다.

이런 세부들은 모두 ‘나’의 신빙성을 의심케 하는 텍스트의 신호들로서, ‘나’가 어쩌면 첫 남편의 사고에 개입했는지 모른다는 의혹을 갖게 한다. 하지만 위의 내용들만으로 ‘나’의 혐의를 확인할 수는 없으며, ‘나’는 단지 인식하고 자기중심적이던 남편의 우연한 사고로 뜻밖에 경제력을 갖춘 채 “완벽히 혼자”(103면)가 된 상태에 만족하는 인물일지도 모른다. 만약 ‘나’가 정말 이 사고와 무관하다면, ‘나’의 서술은 적어도 보고의 층위에서는 상당히 신빙성이 높다고(자신에게 불리한 사실조차 숨김없이 진술한다고) 보아야 한다. 그렇다면 서술의 신빙성 문제는 주로 ‘나’의 윤리와 가치관의 층위에서 발생한다 하겠는데, 이 역시 어느 정도는 ‘좋은 아내’나 상식적인 ‘미망인’의 모습에 관한 사회적 통념에 기인하는 것일 수 있다. 이런 측면은 ‘나’의 서술에 대한 선입견이나 오해로 작용할 여지도 있는 것이다.

‘나’의 서술이 지닌 신빙성 여부와 그 정도는 이렇듯 아직까지 불확실한 상태에 있다. 『순수』의 실제 독자는 텍스트가 제공하는 신호들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저자의 청중으로서 ‘나’의 서술이 어느 정도의 신빙성을 지니는지 추론해가는 한편, 각자의 가치관에 비추어 ‘나’의 도덕성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설정할 것이다. 이를테면 “발리로의 여행을 준비하기 위해 나는 하드케이스로 만든 트렁크를 사고, 중절 수술을 받았습니다. 수술은 생각보다 간단했어요. (...) 당신도 이미 눈치 챌겠지만 나는 매우 독립적인 성격의 여성입니다.”(104면)라는 ‘나’의 서술은 단지 냉소적인 서술자의 아이러니한 발언일 수도 있고, 서술자의 평가 행위(자신이 ‘독립적인’ 여성이라는)를 신

퇴할 수 없게 만드는 내포저자의 아이러니일 수도 있다.²⁴⁾ 소설 초반부까지 서술의 신빙성에 대한 독자의 판단은 일시적으로 유보되거나 잠정적인 상태로 남게 되며, 이 잠정적 판단에는 실제 독자 개인의 신념과 가치관이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한편 두 번째 남편에 대한 서술에서는 이런 불확실성이 상당 부분 줄어들고 비신빙성의 신호들이 좀 더 선명해진다. ‘나’의 진술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나’는 휴양지에서 “1캐럿의 다이아몬드 반지를 선물”하는 “낭만적인”(105-106면) 사업가(찰리)와 만나 결혼식을 올린 뒤, 그의 ‘더러운 침실 매너’를 알게 된다. “정신없이 카드를 긁어대”(108면)는 일에 싫증이 나자 ‘나’는 남편이 ‘BMW525’와 함께 선물한 운전기사 ‘양’과 “밀회”(109면)하기 시작한다. 그러다 “양이 나를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정말, 난감한 일”(110면)이 일어난다. 양이 “나와 같이 떠나자”고 말한 데 대해 ‘나’는 “외간남자와 몇 번 같이 잔 것만으로 덜컥 밤 봇짐을 싸서 가정이고 뭐고 다 버리고 도망가는 여자가 어디 있나요. 난 그렇게 부도덕하지도, 머리가 나쁘지도 않습니다.”(110면)라고 서술한다. 벌어진 상황에 대한 ‘나’의 이런 해석과 평가는 ‘도덕성’과 관련된 자기모순을 드러냄과 동시에 ‘영리한 계산’에 따라 움직이는 자신의 속성을 무심코 누설한다는 점에서, 신빙성 없음의 도드라진 표지라 하겠다.

자신의 의심스러운 행동을 애써 ‘자기합리화’하는 태도 역시 서술의 비신빙성을 알리는 표지로 기능한다. ‘나’는 앞선 서술과 모순되게도 양에게 “나도 그러고 싶지만, 그렇지만 그건 안 돼. (...) 그는 절대로 이혼해주지 않을 거야.”(111면)라고 말하는데, 이를 합리화하기 위해 “내 심정을 솔직하게 밝힌다면 양은 커다란 상처를 받을 테니까요. 나는 사람을 앞에 두고 모진 말을 뱉을 만큼 돼먹지 못한

24) 아이러니한 서술자와 믿을 수 없는 서술자의 차이에 대해서는 S. Chatman(1978), p. 229 참조.

여자 또한 아닙니다.”(110-111면)라고 진술한다. 이 대목은 서술자의 입장과 거리를 유지하며 저자의 청중과 이면적 의미를 공유하는 내포저자의 수사학으로 인해 아이러니하게 들린다. ‘나’는 또 양에게 “나도 사랑해. 그렇지만 우린 떠나지 못할 거야. 찰리가 죽기 전엔 결코.”(111면)라고도 말하는데, 이 말에 깔린 수상한 의도를 간파한 독자라면, 인물이자 서술자인 ‘나’와 인식적이고 윤리적인 차원에서 한층 더 멀어지게 될 것이다. ‘나’는 자신의 말이 “함께 갈 수 없다는 완곡한 거절의 표현이었을 뿐이지, 살인 교사 따위는 절대로 아니었”으며 “명세해도 좋”(111면)다고 강변하지만, 이 강력한 부인은 ‘나’의 비신빙성을 더욱 강화하는 효과를 낸다.

나아가 독자(저자의 청중)는, ‘나’가 표면적 의미에서 살인을 ‘교사’한 게 아닐지라도, 어쩌면 그 이상으로 이 살인 사건에 교묘하게 개입했을지 모른다는 의혹을 갖게 된다. 이 점은 조사 과정에서 양이 했다는 “여러 가지 거짓말”(112면)과 관련된다. 우선 “찰리가 먼저 막무가내로 골프채를 휘둘렀다”는 양의 주장에 대해 ‘나’는 “어떻게든 극형을 면하려는 술책”(111면)이었다고 말하면서, “찰리같이 부러울 것 없는 성공한 사업가가 왜 한낱 고용인에게 그런 짓을 했겠”(112면)느냐고 반문한다. 그러나 “다혈질”(108면)에 의처증 경향이 있던²⁵⁾ 찰리가 어떤 경로로든 ‘나’에 대한 양의 감정을 알게 됐다고 가정하면, 양의 주장은 사실일 가능성이 충분하다. 양은 또 “찰리의 몸에서 사라진 지갑이 자신의 하숙방에서 발견되었는데도 모르는 일이라고 펄펄 뛰”(112면)었다고 하는데, 만약 양이 아닌 누군가가 그의 하숙방에 찰리의 지갑을 가져다두었다면, 양의 태도는 얼

25) 찰리는 ‘나’에게 “하루에 스무 번 정도 전화를 걸”어 “너 지금 어디 있니”라고 묻는데, “내가 어쩌다 전화를 받지 못하거나 행적이 묘연하다 싶으면 (...) 사무실에 앉아 반미치광이처럼 소리를 질러”(108면)였다고 한다. ‘나’는 그의 잦은 전화를 “다정하”(108면)다는 말로 재기술하지만, 자신이 재현한 것과 그에 대한 해석·평가의 이런 불일치 또한 ‘나’의 서술의 비신빙성을 알리는 표지라 하겠다.

마든지 납득 가능해진다. 위의 가정이 모두 사실이고 그 일련의 과정에 ‘나’가 직접 관여했다면, 인물인 ‘나’의 도덕성은 비난을 면치 못할 것이다. 그럴 경우 서술자로서도 ‘나’는 결정적인 정보를 보고에서 누락하고, 악의적으로 왜곡된 해석과 평가를 제공한 것이 된다.

물론 이런 의혹은 지나친 추측일 수도 있으므로, 독자는 여러 가능성을 열어둔 채로 추론을 계속해나갈 것이다. 하지만 적어도 서술자인 ‘나’가 양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음으로써 부정확하거나 불충분한(양에게는 가혹하고 부당한 것일 수 있는) 해석과 평가를 행하고 있음은 분명하다. 양의 판결을 두고 “한 중국 이민자의 강도 및 살인 혐의”에 “법정 최고형”이 구형됐으며 “양은 살아서 자유의 몸이 되기는 어려울 것 같”(112면)다고 ‘나’가 말할 때, 이 살인에 의도적으로 개입했는지 여부와 별개로, ‘나’는 윤리적으로 무감각하고 냉혹하다는 인상을 준다. 바로 다음 문장으로 “어쩌다 보니 나는 다시 혼자가 되었습니다.”(112면)라는 서술이 이어지면, 이 말은 양이 영영 풀려날 수 없기 때문에 ‘나’는 다시 “완벽히 혼자”(103면)가 될 수 있었다는 안도의 말로도 들린다. ‘나’의 서술이 지닌 윤리적 차원의 이 같은 비신빙성은 내포저자가 서술자인 ‘나’의 가치관을 끝이곧대로 지지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뜻하는 것이기도 하다.

이윽고 세 번째 남편과 관련된 서술에 이르면, ‘나’의 표면적인 부인에도 불구하고, 이번 사건에 ‘나’가 의도적으로 개입했다는 사실을 더 분명히 추론할 수 있게 된다. 데이트 중에 “내 손끝 하나 건드리지 않”던 “단정하고 교양 있는 학자”(114면)인 그는 자기 딸(안젤라)과 기이한 ‘연인 관계’를 맺어왔던 것으로 추정되며, 두 사람이 “서재”와 “자기 방”에 있느라 유독 “이층”에 “머무르는 시간이 많았”(116면)던 이유, 안젤라가 ‘나’에게 “차가운 적의”(115면)와 함께 “분노나 모멸감”(117면)을 표출하곤 했던 이유도 여기에 있었을 것

으로 짐작된다. ‘나’는 두 사람의 관계를 이미 눈치 채고 있었고, 그랬기에 “사건이 있던 날 아침” 안젤라에게 “별것 아”닌 “사소한 꾸중”으로 “멍청하게 징징거리지 마라. (...) 네 아빠가 그러는데, 넌 그 순간에도 어린아이처럼 호느끼며 남자에게 매달린다지?”(119면)라고 말했을 것이다. 아마도 거짓이었을 ‘나’의 이 말은 안젤라로 하여금 자기 방 침대에서 아버지의 “벌거벗은 가슴 한복판”(118면)을 칼로 찌르는 “처참한 복수”(119면)를 하게 만든 원인이 된다. 이는 “생닭의 배를 칼로 직접 가르는 일은 내겐 너무 잔인하다”(116면)고 말하는 ‘나’가 고안해낸, 세 번째 남편에 대한 ‘복수’였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그애에게 한 말은 그게 다였습니다. 맹세해도 좋아요. 언제나 그랬듯 나엔 아무런 악의도 없었습니다. 살의 따위는 더더군다나. 나는 벌레 한 마리 놀러 죽이지 못하는 성품입니다.”(119면)라는 ‘나’의 말은 명백한 과소진술이자 거짓말이고, 자기 죄를 부인하며 누설하는 기만적 발화가 된다. ‘맹세’라는 단어의 재등장과 ‘언제나 그랬듯’이라는 표현은 이전 남편들의 죽음에 대해서도 다시 돌아보게 만들면서, 막연히 의심됐던 ‘나’의 ‘살의’와 그 교묘한 실행 가능성을 구체화할 수 있게 해준다. 이전에는 의심스러워 보이지 않던 대목들이 되짚어보았을 때는 ‘나’의 유죄와 자기모순을 넘어서 가리키는 신호였음이 비로소 파악되기도 한다.

이처럼 정이현의 『순수』는 독서가 진행될수록 사실과 인식과 가치의 차원 모두에서 서술의 비신빙성이 점점 더 강해지는 소격 비신빙성을 띤다. 그런데 특이한 것은, 이 명백한 비신빙성에도 불구하고, “어디에 있든 나는 점점 더 강해지고 아름다워질 겁니다. 운명이 주는 어떤 시련에도 굴복하지 않겠어요.”(120면)라는 “나쁜 여자”의 기만적 진술이 어떤 페이스스를 자아²⁶⁾낸다는 점이다. 이는 우선,

26) 이광호, 『그녀들의 위장술, 로맨스의 정치학』, 정이현, 『낭만적 사랑과 사회』 해설, 문학과지성사, 2003, 230면.

‘나’의 전남편들이야말로 도덕적으로 비난받아야 할 인물들이며 그들로 인해 ‘나’ 또한 심한 고통을 겪었으리라는 점과 관련된다. 물론 이런 점들이 ‘나’의 면죄부가 되거나 서술자로서의 신빙성을 높여주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독자로 하여금 믿을 수 없는 서술자의 기만성과 비윤리성을 비난하는 데서 멈추지 않고, 자신의 가치관에 따라 더 적극적인 의미 생성을 시도할 수 있게 해준다. 이를테면 허구 세계의 인물들에 대한 독자(서사의 청중으로서)의 반응은, 아내를 통제하고 성적으로 대상화하거나(두 번째 남편) 결혼과 함께 여성에게 오직 “능숙한 하우스 와이프”(116면)의 역할만을 기대하는(세 번째 남편) 이들의 태도가 소설 ‘바깥’에서도 흔히 발견된다는 통찰로 이어질 수 있다. 그렇게 볼 때 이 소설의 신빙성 없는 서술은 가부장적인 기존 담론과 남성중심의 위선적 통념을 교묘하게 뒤집는 역담론(counterdiscourse)이 될 수 있는데, 이 같은 역담론이 기만적인 ‘악녀’의 목소리로 이루어져야 했다는 점은 의미심장하다.

이와 관련하여 현실 세계에 대한 논평의 성격을 띠는 다음의 인용문도 주목할 만하다.

어느 저녁의 일이던가요. 시장 좌판에서 알록달록 채색된 나무인형들을 구경하고 있는데 뒤에서 휘이익, 긴 휘파람 소리가 들려오더군요. 돌아보니, 조악한 남방셔츠를 풀어헤친 원주민 사내들이 날 가리키며 킬킬대고 있었습니다. 나는 고개를 뺏뺏이 세우고 그들 앞을 천천히 지나쳤습니다. 마치 내 눈에 너희들의 존재 따위는 보이지도 않는다는 듯 말예요. 겁나지 않았느냐고요? 그렇다면 거짓말이겠지요. 하지만 그런 상황에 처한다면 세상 모든 여자들이 나처럼 행동했을 거예요. 약하고 만만해 보이는 순간, 정글의 먹잇감이 되고 만다는 걸 우리 여자들은 본능적으로 알고 있으니까요. 고급 리조트 안에서라면 모를까, 여자 혼자 낯선 길을 걷는 일은 위험해요. 그건 바깥 세상을 몇 발자국 디디기만 해도 알 수 있는 당연한 일입니다. (105면)

이 대목은 스토리상의 한 부수적 장면에 대한 서술로 시작하여 허구 서사 너머의 현실에 관한 ‘비서사적 논평(non-narrative comments)’²⁷⁾으로 이행한다. “세상 모든 여자들”은 “약하고 만만해 보이는 순간, 정글의 먹잇감이 되고” 말기에 자신에게 “바깥 세상”이 “위험”하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고 있다는 ‘나’의 언급은 “어디에 있든 나는 점점 더 강해”(120면)질 거라는 다짐이 어떤 맥락에서 나오는지를 잘 보여준다. 이 논평에 대해 실제 독자가 보일 수 있는 여러 가지 반응들에는 “우리 여자들”이 호명하는 젠더 정체성을 포함하여, 저마다의 특수한 경험과 정치사회적 입장들이 복합적으로 개입할 것이다. 어떤 독자들에게 이 대목은 다만 서술자의 비신빙성을 확인해주는, 교묘한 자기합리화에 지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또 다른 독자들에게는 극도로 신빙성 없고 비윤리적인 서술자의 발언에 어떤 공감을 느끼게 되는, 이질적인 독서 경험을 유발할 수도 있다. 그럴 때 이 독서 경험은 젠더 정치와 관련해 자신의 입장을 되돌아보고 더 정교하게 재설정하는 과정이 될 수 있다. 『순수』에서 믿을 수 없는 서술이 지닌 의의는 이렇듯 실제 독자 개개인이 독서 행위를 통해 경험하게 되는 역동적인 의미 생성의 과정과, 그것이 지닌 능동적 참여로서의 의의에서 찾아야 할 것이다.

3. 윤리적 입장 설정에 대한 요청과 독자 반응의 역동성

임현의 『고두』 역시 서술자의 가치관이나 도덕성 문제와 관련된

27) M. Bal, *Narratology: Introduction to the Theory of Narrative*, Toronto·Buffalo·London: University of Toronto Press, 1985, pp. 128-129.

서술의 신빙성 판단이 독서 과정의 주요 과제로 자리하는 소설이다. 특히 『고두』에는 ‘윤리 교사’임에도 도덕성과 윤리 감각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인물 ‘나’가 서술자로 등장하기 때문에, 이 소설을 읽는 일은 강한 거부감을 불러일으키는 경우가 많다. 이는 여고생 제자와의 ‘성관계’라는 소재 자체에서 비롯된 것이기도 한데, 이런 거부감은 곧바로 이 소설과 실제 작가에 대한 부정적 반응으로 이어지기도 했다.²⁸⁾ 하지만 이 독서 행위가 능동적인 의미 산출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소재나 인물 서술자가 유발하는 즉각적인 반응을 넘어 서술의 신빙성을 꼼꼼하게 따져보는 지적인 추론 과정이 동반되어야 한다.

여기서 먼저 짚어두어야 할 것은, 허구 세계의 인물로서 ‘나’가 지닌 비윤리성이 그 자체로 ‘나’의 서술의 신빙성 없음을 뜻하지는 않는다는 점이다. 인물인 ‘나’의 윤리 문제와는 별개로 서술자로서 ‘나’의 보고가 허구 세계에 대한 정보들을 충실히 전달하는 한편, 이에 대한 ‘나’의 해석이 자신이 재현한 바와 일치한다면, 나아가 허구 세계의 사실들에 대한 ‘나’의 가치평가가 텍스트 전반에 비추어보았을 때 모순됨이 없다면(그 어떤 비신빙성의 신호도 발견되지 않는다면), ‘나’의 서술은 신빙성을 지닌다고 보아야 한다.²⁹⁾ 이때 평가 행위 면에서의 ‘나’의 서술이 ‘믿을 수 있다’는 것은 서술자의 가치가 텍스트 전반에서 암시되는 가치(내포저자의 가치)에 부합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처럼 서술의 신빙성 판단은 텍스트(또는 내포저자)

28) 이에 대해 황현경은 “너무 많은 오해”라는 표현을 사용하며 긴 반론을 펴기도 했다. 황현경, 『틀린 옳음』, 임현, 『그 개와 같은 말』 해설, 현대문학, 2017, 298-301면.

29) 올슨은 텍스트 내적인 불일치와 같은 신호들이 주어지면 통찰력 있는 독자들이 이를 근거로 신빙성 판단을 하게 된다고 말하면서, “믿을 수 없는 서술은 텍스트의 항수(textual constant)”라고 밝힌 바 있다. G. Olson, “Reconsidering Unreliability: Fallible and Untrustworthy Narrator”, *Narrative* Vol. 11-1, 2003, p. 95.

의 가치 체계를 추론하는 과정과 맞물려 있는데, 만약 독자가 보기
에 비윤리적인 관점을 지닌 인물 서술자가 텍스트의 가치 체계를 대
변하는(즉 믿을 수 있는) 서술자로 판단된다면, 독자는 그 텍스트를
받아들일 수 없을 것이다. 반대로 비윤리적인 인물 서술자의 가치평
가가 텍스트 전반의 가치 체계와 충돌하면서(부조화와 불일치를 드
러내는 텍스트 내적 신호들에 근거해) 믿을 수 없는 서술로 나타날
때는, 인물 서술자에 대한 독자의 부정적 반응은 텍스트에 대한 거
부나 회의적 반응으로 귀결되지 않을 수 있다. 오히려 독자는 인물
서술자의 가치와 텍스트 전반의 가치 사이에 벌어진 간극을 매개로
하여, 자신의 가치관이 적극적으로 투영된 능동적 의미 생성에 참여
할 수 있을 것이다.

임현의 『고두』에서도 이 과정으로 독자를 초대하는 믿을 수 없는
서술의 수사학을 발견할 수 있다. 당겨 말하면 『고두』의 서술은 보
고의 층위에서는 전반적으로 신빙성이 높지만 해석과 평가의 층위
에서는 신빙성이 강하게 의심되다가 결국 신빙성 없음이 판명되는,
소격 비신빙성을 지니고 있다. 독자는 특히 윤리적인 가치평가의 차
원에서 신빙성이 의심스러운 ‘나’의 서술과 거리를 조정해가며 자신
의 입장을 구체화하게 되는데, 궤변에 가까운 ‘나’의 서술은 소설 초
반부(1, 2장)까지는 일견 설득력을 지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이들테면 “인간은 본래 이기적이고 그러므로 노력해야 한다. (...)”
의지를 가지고 아주 의식적으로 행동하지 않으면 그냥 생긴 대로 살
게 되거든.”³⁰⁾이라는 말은 독자에 따라 “개인적이지만 이기적이지는
않겠다는 태도보다 이기적이니까 지킬 건 지키겠다는 태도가 어찌
면 더 솔직한 것이 아닐까.”³¹⁾라는 반응을 불러오기도 하는 것이다.

30) 임현, 『고두』, 『그 개와 같은 말』, 현대문학, 2017, 33면. 이후 이 소설의 인
용 부분은 본문 괄호 안에 면수로만 표기한다.

31) 노태훈, 『사과할 수 없다는 사과』, 『2017년 제8회 젊은작가상 수상 작품집』,
문학동네, 2017, 45면.

그러다가 젊은 날의 제자였던 연주와의 일이 본격적으로 서술되기 시작하면서(3장 이후) ‘나’의 서술은 비굴한 변명과 터무니없는 자기 합리화로 뒤덮이게 된다.

한편 이 소설에서 믿을 수 없는 서술의 수사학적 성격은 서술자인 ‘나’가 ‘너’라는 수화자를 상대로 자신의 가치관을 피력하면서 자기 이야기를 늘어놓는 식의 서술 상황으로 인해 더욱 도드라진다. ‘너’가 오래 전 연주가 낳은 ‘나’의 아들을 지칭한다는 것은 결말부(6장)에 이르러서야 독자에게 알려지는데, 서술이 상당히 진행되기까지 정체를 알 수 없는 수화자 ‘너’는 독자를 직접 향하는 호명으로 들린다. 소설의 초반부터 독자는 “너도 들어보지 않았니? (...) 모른다고? 그런 일에 전혀 관심이 없다고? (...) 봐라, 내가 이렇게 이기적이다”(33면), “뭐라고 했니? 역겹다고 그랬니? 여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구나. 인간이란 본래부터 다들 이기적인 거거든.”(34면)과 같이, 거침없이 수화자를 몰아세우는 ‘나’의 목소리와 맞부딪힌다. 그렇기에 수화자인 ‘너’의 자리에서 이 소설을 읽어나가는 일은 실제 독자 개개인에게, 신빙성 여부를 아직은 확인할 수 없는 서술자와 벌이는 논리적 대결이자 윤리적 투쟁이 된다.

수화자에 대한 ‘나’의 강압적 태도에 주목하면, 『고두』의 서술자는 말해진 것(스토리)의 층위에서뿐 아니라 말하기(담화)의 층위에서도 비윤리적인 속성을 띤다고 할 수 있다.³²⁾ 그런 ‘나’의 서술에 대한 신빙성 판단은, 실제 독자가 이 소설 자체(내포저자)의 윤리적 입장을 추론하고 그것에 대한 자신의 반응을 형성하는 데에 결정적으로 중요하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저자의 청중 안으로 들어가 서술의 신빙성을 의심케 하는 텍스트의 신호들을 감지해내는 일이 필수적이다. 독서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이 같은 신빙성 판단의 과정

32) ‘말해진 것의 윤리’와 ‘말하기의 윤리’에 대해서는 J. Phelan(2006), p. 323 참조.

을 찬찬히 따라가 보자.

우선 1장에서 “모든 이타적인 행동에는 이기적인 의도가 숨어 있”(32면)으며 “인간은 본래 이기적”(33면)이라는 ‘나’의 주장은 개별 독자의 가치관에 따라 각기 다른 설득력을 지닐 수 있지만, 그래서 자기 역시 “반에서 가장 성적이 우수한” 전교회장의 사고 소식을 듣고는 제일 먼저 “그것으로 깎이게 될 반평균이 아까웠”(34면)다는 ‘나’의 서술은 의아함을 품게 만든다. 게다가 “괜히 내기는 해가지고. 옆 반 담임만 좋은 일이라고 생각했지. (...) 전화를 끊고도 내가 한참을 잠들지 못했던 건 아무래도 그게 가장 큰 이유였다.”(34면)는 말이 이어지면, 이는 그럴듯한 논리를 내세우는 ‘나’의 주장이 실은 억지스러운 궤변이 아닌지 의심해보라는 텍스트의 신호로 이해될 수 있다.

이런 신호들과 더불어, 온전히 동의하기는 어렵지만 얼마간 수긍이 가기도 하는 ‘나’의 주장은 2장에서도 계속 이어진다. “나는 예의가 없는 인간들을 아주 싫어한다. 눈치 없는 행동이라든가 절제할 줄 모르는 자유분방함, (...) 잘못을 지적해도 반성하지 않으며 도리어 상대방을 쾀대다, 보수적이다, 비하하는 자들 말이다.”(36-37면), “진정성이나 진심 같은 말들을 나는 전혀 신뢰하지 않는다. 그걸 무엇으로 판단할 수 있겠니? 진짜는 머리를 조아리는 각도, 무릎을 꿇는 자세에서 오는 것들 아니겠니? 너를 때리긴 하지만 사랑하는 마음만은 진심이다, 같은 건 없단다.”(38면)와 같은 서술들이 그런 예이다. 앞에서 이미 ‘나’의 윤리성과 서술자로서의 신빙성에 의문이 제기됐음에도, 이에 대해 단정을 내리기가 어려운 상태는 이렇듯 한동안 지속된다.

2장에서는 또한 처음 부임했던 공립여고에서 “나의 수업을 엉망으로 만들어놓”았던 “무례한”(36면) 여학생 연주에 대한 언급이 시작된다. 이날 연주는 ‘나’의 말에 예의바르게 이의를 제기하던 선하

고 “유복한 여학생”을 웃음거리로 만들었는데, ‘나’는 그 일 “이후로 연주를 주목했”(38면)다고 말한다. 그런데 “물론 그 일이 아니었다 라도 연주는 눈에 띄 만한 학생이었다. 큰 키에 또래보다 성숙한 체 형, 남자 선생들끼리 모여 하는 농담을 여러 번 듣기도 했었다. 대 부분은 부도덕한 말이었고 (….) 무엇보다 소문이 좋지 않았 지.”(38-39면)라는 대목에 유의한다면, “수업 중에 그 유복한 여학 생을 보는 척,” 연주의 “엎드린 등을, 피로에 빠진 시선을, 무엇 하 나 애쓰지 않는 지루함 같은 것을”(38면) 엿보던 ‘나’의 시선에 어떤 욕망이 섞여 있었는지를 짐작해볼 수 있다. 그러므로 연주가 주변 일을 제대로 하지 않았을 때 “교사로서 마땅한 의무를 다하”느라 그 아이를 따로 불러 “지켜야 할 것들에 대해”(39면) 일러주었고, “자칫 자신만을 타하는 거라고 연주가 오해할까 염려”(39-40면)하여 일부 러 연주의 짝인 ‘유복한 여학생’을 함께 불렀다는 ‘나’의 말은 자신의 불순한 욕망을 숨기기 위한 변명이거나 자기기만일 수 있다. 하지만 이후에 벌어질 사건을 알지 못하는 독자에게는 이런 비신빙성의 신 호들이 아직은 희미하거나 불분명하게 느껴질 것이다.

반면에 연주에게 ‘나’가 저지른 일이 낱낱이 밝혀지는 3장과 4장 에서는 비신빙성의 신호들이 훨씬 더 명확해진다. 식당일을 하는 연 주를 우연히 보게 된 ‘나’는 늦은 밤까지 그 애를 기다렸다가 집에 바래다주는데, 그러는 길에 연주가 부모 없이 혼자 생계를 꾸려가고 있다는 사실도 알게 된다. 이 장면을 서술하던 ‘나’는 갑자기 “나쁜 것은 나쁘고 우리는 올바르다”는 “확고하고 안정된 자세”(43면)의 문제점에 대해 설교하기 시작하더니, 또 불쑥 “뭘 묻고 싶은 거니?/ 그래서./쟤냐고?”(43-44면)라고 묻는다. 곧이어 “그렇게 묻는다면 나도 그렇게 대답할 것이다./어쩔 수 없었던단다.”(44면)라는 말이 튀 어나오면서, ‘나’의 비윤리성과 서술자로서의 기만성은 여지없이 드 러난다. 이에 더하여 “나를 위선자라고 욕하고 싶겠지. 그러나 나는

결코 그런 사람이 아니란다. 미성년자의 몸이나 탐할 만큼 성욕을 억제하지 못하는 과렴치한이 아니라는 말이다. (...) 시간이 될 때마다 식당에 들러 연주를 바래다”(44면)준 것은 “교사로서 어려운 학생을 위한 당연한 도리였”(45면)다는 식의 뻔뻔한 자기합리화가 연달아 나오면서, 해석과 평가 행위에서 ‘나’가 극도로 신빙성 없는 서술자임은 더욱 분명해진다.

‘나’가 서술하는 사건의 내막은 이러하다. 모텔과 술집들이 늘어선 밤거리를 연주와 함께 걷다가 동료교사와 마주친 ‘나’는 “학생지도 중”(45면)이라고 둘러대는데, 연주가 그 교사에게 뺨을 맞게 되자 ‘나’는 ‘사과’를 하기 위해 연주의 집에 따라 들어간다. 그때 연주가 울며 사랑을 고백했고, “그걸 감히 내가 어떻게 거부할 수 있었겠”(47면)느냐는 것이다. 연주와 잔 것은 “나로서는 전혀 원하지 않는 일이었지만 (...) 온전히 연주를 위한 선택이었고 죄를 지은 자의 책임감 같은 것이었”(47면)다는 ‘나’의 서술은 너무도 비겁하고 ‘무책임’해서 자기모순을 그대로 노출하고 있다. 이 대목은 “잘못을 했다면 더 오래 무릎을 꿇고 더 낮게 엎드리는 자세”가 “일종의 의무이며 책임지는 자의 태도”(38면)라던 이전의 주장과도 충돌하면서, ‘나’의 궤변들이 얼마나 기만적인 것이었는지를 폭로하기도 한다. 그 날 이후 학교에 오지 않는 연주를 한 번도 찾지 않은 데 대해 “그러지 말았어야 했는데 그래버렸다고, 연주에게도 그건 좋지 않은 일이었다고 반성하며 자책”하느라 “직접 찾아가볼 엄두는 전혀 나지 않”(48면)았다고 변명하는 ‘나’의 태도 역시 위선적이고 무책임하기는 마찬가지다. 이런 변명은, 연주가 “나중에라도 뭘 말하게 될지 진짜 무서”(47면)워하다가 “나와 관계된” “소문”은 “하나도 없”음을 알고는 이내 당당해져서 “아무도 믿지 않는데 내가 뭘 반성할 수 있었겠”(48면)냐고 되묻는, ‘나’의 또 다른 서술들과도 정면으로 배치된다.

그러던 중, 이미 퇴학이 처리된 연주가 “부른 배”(51면)를 안고 교무실로 찾아와 내 앞에서 무릎을 꿇고 “사랑했어요.”(50면), “죄송합니다.”(51면)라고 ‘사과’하는 일(5장)이 벌어진다. 이 장면에서는 “그래서, 뭐./뭐, 씨발./나보고 어찌라고.”(51면) 같은 ‘나’의 속생각과, “이 학생이 너무 딱해보여서 한 번, 진짜 딱 한번 왔는데 아, 일이 이렇게 커졌네. (...) 수학 선생님, 이 학생 상황이 진짜 안 좋나니까요. 국어 선생님, 사정을 들어보면 너도 애랑 잘걸? 딸 같은 이 학생이 교감 선생님은 불쌍하지도 않아요? 어떻게 안 잘 수 있어. 그럴 수 있어요? 사람들이 어떻게 다들 그래요?”(51-52면)라는 ‘나’의 비굴한 혼잣말이 고스란히 서술된다. 이는 내포저자와 저자의 청중이 ‘공모’하여 믿을 수 없는 서술자를 함께 비웃고 있다는 사실이 노골적으로 드러나는 부분이라 하겠다. 학교를 떠나는 ‘나’에게 유일하게 허리를 숙였던 ‘유복한 여학생’조차도 악수를 하려고 ‘나’가 손을 내밀자 “손 치워, 이 개새끼야. (...) 아, 죄송해요. 부모님께서 위급할 때 그러라고…… 그래도 된다고, 그런데 제발 손 좀 치워주세요.”라고 말하는데, 이를 두고 ‘나’가 “끝까지 예의가 바른 학생이었지.”(53면)라고 회상하는 대목에서도 서술자에 대한 내포저자의 차가운 조롱을 뚜렷이 확인할 수 있다.

이어지는 소설의 결말부(6장)에서는 사고를 당한 ‘나’의 반 학생 회장에 관한 이야기가 재등장하는 동시에, 수화자 ‘너’의 정체가 독자에게 알려진다. ‘나’는 학생회장의 병실을 찾아와 무릎을 꿇는 가해자의 엄마에게서, 잊고 있던 연주의 모습을 본다. 태연하고 파렴치한 태도로 “죄송합니다. 하지만 그건 사고였어요.”라고 말하면서도 “무릎을 꿇고 머리를 조아”리는 “자세만큼은 (...) 완벽”(56면)하던 그 여자는 “진짜 연주”(57면)가 아니었을 수도 있다. ‘나’가 본 것은 어찌면, 중요한 건 진정성 따위가 아니라 “완벽한 사과의 자세”(51면)라고 강조해온 자신의 비열함과 그 속에 숨은 무서운 폭력성일지

모른다. 그러나 ‘나’는 “자신의 행동을 돌아보고 끊임없이 반성”(33면)하기는커녕 아무것도 인정하려 하지 않는다. 대신에 ‘나’는 ‘너’가 풀려나는 날에 맞추어 구치소를 찾아가는데, “너에게 사과하기 위해서. 나도 용서받고 싶어서.”(58면)라는 것이 ‘나’의 명분이다. 하지만 ‘너’가 ‘나’의 아들이 아닐 가능성은 접어두고라도 구치소 앞 “어디에도 너는 없었”(59면)으니, ‘나’의 이 장황한 이야기는 ‘너’에게 전해지지 못할 것이다. 그런데도 “아무도 찾아가지 않는 사내아이 하 나”에게 무작정 다가가 “잘 마모된 조약돌 같은 머리통을 휘갈기며(…) 차마 너에게 하지 못할 훈계들을 늘어놓”(59면)는 ‘나’의 태도는 서술자로서의 비윤리성과 기만성을 거듭 확인해주는 지독한 결말이 아닐 수 없다.

따라서 『고두』의 믿을 수 없는 서술자를 내포저자와 동일시하는 것은 명백한 오독이다. 오히려 이 소설은 독자로 하여금 “너라면 다를 줄 아는 거겠지”(50면)라는 ‘나’의 궤변과 줄다리기를 하며 자신의 윤리적 입장을 분명히 하고 다시 세울 것을 요청한다. 물론 개별 독자가 가진 특수한 가치와 신념들은 이 소설에 대한 반응과 의미 생성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 독서 과정으로의 초대에 응하기를 거절할 정도로, 『고두』가 다루는 소재나 인물인 ‘나’의 비윤리성에 격렬한 반감을 느끼는 독자(서사의 청중으로서)도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이 초대를 받아들인 독자(저자의 청중으로서)라면, ‘나’의 “궤변 안으로” 얼마간 “빨려 들어갔다가 강한 불쾌감을 느끼며 튕겨”³³⁾나오는 경험을 통해 다소 불편하고 복잡한 감정 속에서 자신의 가치관을 되돌아보게 될 것이다. 이때에도 인간의 이기심과 위선의 문제, 진정한 사과와 책임의 의미, 또는 “선한 사람이 가진 무지”나 “자기만 옳다고 믿는 무서운 확신”(35면) 등등, 더 민감하게 반응하고 고민하는 주제들은 개별 독자마다 다를 수 있다. 독자들 개

33) 권희철, 『심사평』, 『2017년 제8회 젊은작가상 수상 작품집』, 333면.

개인에게 윤리적 참여로서의 의미를 지닐 이 같은 독서 경험은 믿을 수 없는 서술의 수사학적 특징과 그 의의를 잘 대변해준다.

4. 믿을 수 없는 서술을 의미화하는 독서 과정의 의의

지금까지 이 글에서는 정이현의 『순수』와 임현의 『고두』를 통해, 서술의 신빙성 여부를 판단하고 믿을 수 없는 서술을 의미화하는 독서의 역동적 과정을 살펴보았다. 『순수』에서는 내포저자가 제공한 텍스트의 신호들에 근거해 서술자의 비신빙성을 추론하는 저자의 청중으로서의 역할과, 이 같은 신빙성 판단을 바탕으로 자신의 가치관에 따라 믿을 수 없는 서술을 의미화하는 독서 경험의 가능성을 중점적으로 다루었다. 『고두』에서는 이와 더불어, 특히 ‘너’라는 수화자의 존재로 전경화된 믿을 수 없는 서술의 수사학이 독자에게 윤리적 입장 설정을 촉구하는 양상과, 이에 대해 다양한 실제 독자가 보일 수 있는 각기 다른 반응들에 대해 논의하였다. 이로써 신빙성 없는 서술자의 가치와 텍스트 전반(또는 내포저자)의 가치 사이에서 가로놓인 간극을 매개로 하여, 자신의 가치관이 적극적으로 투영된 의미를 생성하는 독서 과정의 의의를 확인할 수 있었다.

이렇듯 믿을 수 없는 서술을 다루는 데는 독자의 가치에 개입하고 특정한 방향으로 영향을 미치고자 하는 저자적 행위 주체의 수사학과, 각기 다른 신념과 가치를 지닌 실제 독자가 경험하는 능동적 참여로서의 독서 과정을 연계하여 살피는 관점이 필요하다. 그렇게 할 때 신빙성 판단의 타당성을 확보하면서도 개별 독자의 서로 다른 윤리적 반응들을 존중하는 일이 가능할 것이며, 수사학적 접근과 인지론적 접근을 종합하면서 믿을 수 없는 서술을 더 깊이 있게 논의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최근 들어 젠더 문제를 비롯한 정치사회적

신념이 극단적으로 대립하면서 강의실에서나 비평 현장에서 텍스트에 대한 상반된 해석과 평가들이 격렬하게 충돌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현상이 선입관에 기인한 오독이나 소모적 논쟁에 머무르지 않고 생산적인 논의로 나아가기 위해서도 이 같은 관점은 반드시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텍스트 내적 요소들에 근거한 해석의 타당성과 서로 다른 가치판단에 입각한 독자 반응의 역동성을 함께 고려하는 관점은 믿을 수 없는 서술의 영역을 넘어 소설 교육과 문학비평의장에서 더 적극적으로 활용되어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

1. 단행본

- Bal, M., *Narratology: Introduction to the Theory of Narrative*, Toronto·Buffalo·London: University of Toronto Press, 1985.
- Booth, W. C., *The Rhetoric of Fiction*, 2nd. ed., Chicago & London: Chicago University Press, 1983(1961).
- Chatman, S., *Coming to Terms: The Rhetoric of Narrative in Fiction and Film*, Ithaca & London: Cornell University Press, 1990.
- Chatman, S., *Story and Discourse: Narrative Structure in Fiction and Film*, Ithaca & London: Cornell University Press, 1978.
- Phelan, J., *Living to Tell about It: A Rhetoric and Ethics of Character Narration*, Ithaca & London: Cornell University Press, 2005.
- Pier, J. ed., *Reconceptualizing Trends in Narratological Research*, Tours: Tours University Press, 1999.
- Rabinowitz, P. J. & Smith, M. W., *Authorizing Readers*, New York: Teachers College Press, 1988.

2. 논문 및 기타

- 권희철, 「심사평」, 『2017년 제8회 젊은작가상 수상 작품집』, 문학동네, 2017, 331-334면.
- 김경애, 「‘믿을 수 없는 서술’ 개념을 활용한 읽기 교육 방법 모색」, 『교양교육연구』 제8권 5호, 한국교양교육학회, 2014, 295-330면.
- 노태훈, 「사과할 수 없다는 사과」, 『2017년 제8회 젊은작가상 수상 작품집』, 문학동네, 2017, 41-46면.
- 박진, 「믿을 수 없는 서술의 이론적 쟁점과 신빙성 판단 과정의 윤리적 효과」, 『현대문학이론연구』 제75집, 현대문학이론학회, 2018, 135-158면.
- 박형서, 「서술의 신빙성 연구」, 『우리어문연구』 제25집, 우리어문학회, 2015, 69-102면.
- 이광호, 「그녀들의 위장술, 로맨스의 정치학」, 정이현, 『낭만적 사랑과 사회』 해설, 문학고지성사, 2003, 225-249면.



- 정진석, 「소설 이해로서 서술자의 신빙성 평가에 관한 연구」, 『국어교육학연구』 제42집, 국어교육학회, 2011, 627-667면.
- 최병우, 「서술자의 신빙성에 관한 연구—한국 근대소설의 형성과 관련하여」, 『현대소설연구』 제19집, 한국현대소설학회, 2003, 107-128면.
- 최인자, 「소설 화자의 맥락적 이해와 윤리적 반응 형성을 위한 소설 교육」, 『독서연구』 제25집, 한국독서학회, 2011, 107-131면.
- 황현경, 「틀린 옳음」, 임현, 『그 개와 같은 말』 해설, 현대문학, 2017, 283-303면.
- Nünning, A. F., “Reconceptualizing Unreliable Narration”, Phelan, J. & Rabinowitz, P. J. ed., *A Companion to Narrative Theory*, Oxford: Blackwell, 2005, pp. 89-107.
- Nünning, A. F., ““But Why Will You Say That I am Mad?”: On the Theory, History, and Signals of Unreliable Narration in British Fiction”, *Arbeiten aus Anglistik und Amerikanistik* Vol. 22, 1997, pp. 83-105.
- Olson, G., “Reconsidering Unreliability: Fallible and Untrustworthy Narrator”, *Narrative* Vol. 11-1, 2003, pp. 93-109.
- Phelan, J., “Estranging Unreliability, Bonding Unreliability, and the Ethics of *Lolita*”, *Narrative* Vol. 15-2, 2007, pp. 222-238.
- Phelan, J., “Narrative Theory, 1966-2006: A Narrative”, Scholes, R., Phelan, J. & Kellogg, R., *The Nature of Narrative*, Fortieth Anniversary Edition, Oxford &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2006, pp. 283-336.
- Zerweck, B., “Historicizing Unreliable Narration: Unreliability and Cultural Discourse in Narrative Fiction”, *Style* Vol. 35, 2001, pp. 151-178.



<Abstract>

The Rhetoric of Unreliable Narration and The Dynamics of Reading Processes

Park, Jin

“Unreliable narration” is a concept that has been gaining attention again recently. Unreliable narration is being reconceptualized, combining rhetorical/ethical approaches and reader-centered cognitive approaches. However, domestic discussions do not fully reflect this achievement. The studies from a rhetorical point of view remain in the limited realm of “aesthetic rhetorics” with no ethical dimension. On the other hand, studies from a cognitive perspective also raise the question for the validity of interpretation by leaving the norm of “unreliability” to the value of each reader. In this essay, we will explore the unreliable narration's rhetoric and the reader's reading process together. In doing so, we would like to examine how flesh and blood readers can ensure the validity of judgement on reliability while contributing to the active formation of meaning. In the main chapters, we will analyze unreliable narration in Jeong, Yi-hyeon's *Purity* and Lim, Hyeon's *Go-doo*. In *Purity*, we will examine the role of “authorial audience” to infer the unreliability of narration and the process by which real readers with their own beliefs and values participate in the creation of meanings. In *Go-doo*, we will take a look the rhetoric of unreliable narration which urges readers to set up



ethical positions, and different reactions that the real readers may show. It will confirm the significance of unreliable narration as a reading experience for each of real reader. This work would be to combine rhetorical/ethical and cognitive approaches to further discuss the unreliable narration.

Key Words: Unreliable Narration, Reading Process, Judgement on Reliability , Rhetoric of Implied Author, Cognitive Narratology, Reader's Ethical Response, Authorial Audience, Narrative Audience, Estranging Unreliability

투 고 일 : 2019년 4월 27일 심 사 일 : 2019년 5월 20일-6월 11일

게재확정일 : 2019년 6월 12일 수정마감일 : 2019년 6월 26일